

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모여 앉아 화두 든다



지난해 열린 제1회 간화선 국제세미나

8월 15~23일 제2회 간화선 국제세미나 간화선 원리·구조 15개 주제 논문 발표 국내외 석학 비롯 500여 명 참석해 본 대회 앞두고 백담사서 간화선 실참

세계적인 불교 석학들이 한국에 모여 간화선의 원리와 구조를 탐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합연구소(소장 종호)는 8월 15~23일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제2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간화선 그 원리와 구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본 대회에 앞서 참여하는 해외석학들이 간화선을 실참하며 대회 이후 사찰순례 및 선지식과의 대담 등을 통해 간화선 문답을 진행해 논길을 끈다.

15~19일 인제 백담사에서는 동국대 국제선센터 센터장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을 지도법사로 간화선 실참이 진행된다.

간화선 실참에서 참가자들은 조사어록에 실해진 방법대로 화두 참구를 진행한다. 특히 중간의 방선과 행선 시간안이 진행된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그 자리에서 선지식을 통해 직접 점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1일에는 동국대 중앙당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학술대회는 '간화선의 실체와 세계화'를 주제로 한 수불 스님의 기조강연을 시작된다. 이어 로버트버스웰 UCLA 불교학 센터장, 피터 그레고리 미국 스미스대학 교수, 마천상 중국 무한대학 교수, 나카지마 시로 일본 하나조노 대학 교수 등 해외 석학들을 비롯해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동국대 교수 해원 스님 등 간화선 관련 국내외 석학 29 명이 15편의 주제발표를 통해 간화선의 수행 원리와 구조에 대해 조망한다.

대회가 마무리된 22일과 23일에는 석학들이 석사사와 봉암사, 동화사, 직지사 등에서 선찰답사를 진행하며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봉암사 주지 적명 스님과 간화선에 대한 대담을 벌인다.

종합연구소는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토대로 올 12월 경 간화선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한 한글연구서를 발간하고 내년 12월 경에는 영문연구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종합연구소장 종호 스님은 "세계 여러 연구자들이 한국에 모여 직접 간화선을 실참하고 그 수행을 바탕으로 학문적인 내용을 토론하게 된다"며 "간화선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강 연	발표자	이 력
기조강연 : 간화선의 실체와 세계화	수불 스님	안국선원장 및 이사장, 불교신문사 사장,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1978년 범어사 승가대(대교과)를 졸업했으며 1979년에서 1989년까지 전국 제방 선원에서 참선 안거를 성만했다. 1989년 안국선원을 개원해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제1주제 : 당대에서 송대로의 유동적 연결의 과정에서 나타난 선사상 - 대혜종고 이전을 중심으로	해원 스님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로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다. 조계종 11, 12대 중앙총회의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불교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제2주제 : 둘 또는 하나의 구원론 - 간화선과 종밀의 둔점 수행체계	피터 그레고리	스미스 대 교수로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어 문명학 박사를 취득했다. 구로다 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동아시아 불교학>과 <동아시아 불교고전> 시리즈를 주도해 출판했다. 연구 주제는 중세중국불교며 특히 당송시대 선과 남종이다.
제3주제 : 대혜종고와 죽음의 화두 : 그의 진설과 서를 중심으로	미리암 레버링	테네시 대 종교학, 아시아학과 명예교수로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종교학 박사를 취득했다. 주요관심분야는 선불교, 중국불교, 일본종교 여성 종교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선: 이미지, 텍스트, 가르침>의 다수가 있다.
제4주제 : 간화선에 있어서 疑情의 전환: 高峰原妙의 증언	로버트 버스웰	UCLA 아시아언어문화학과 불교학 특훈교수로 UCLA 불교학 센터장을 맡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종교를 폭넓게 접근해 한국불교와 중국불교, 인도불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15권의 책과 40여 편의 논문을 저술했다.
제5주제 : 중국 간화선에서의 염불 모티프의 사용	모턴 슬터	아이오와대 종교학과 부교수로 아이오와대 자유예술과학대학장을 역임했다. 예일대에서 종교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전공분야는 중국불교다.
제6주제 : 청나라 초기의 선승 옥림통수와 위림도파	마천상	무한대 종교철학과 교수로 노스웨스턴대 역사학 박사를 취득했다. 중국종교사학회, 허난성종교문화협회장이다.
제7주제 : 허운선사의 간화선 사상	황하년	중국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 교수로 중국 사회과학원 대학원을 졸업했다. <세계종교문화>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국 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종교매거진 책임자다.
제8주제 : 道元이 사용한 如淨의 "지관타좌"와 다른 공안들	그리피스 포크	사라 로렌스대 종교학 교수로 미시간대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인문학부장을 역임했으며 젊은 시절 수년간 일본 선원에서 수행했다. 중국선과 일본선불교의 역사에 대해 원전, 의식, 제도적 측면에서 관련 논문들을 저술했다.
제9주제 : 백은의 공안선의 수행체계	나카지마 시로	하나조노대 국제선학과 교수로 중국선사상, 선종사, 조선불교 분야의 전문가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 당대 선종사, 선종사상, 일본근대종교사상이다. 저서로는 <육조단경>의 다수가 있다.
제10주제 : 목우자 지능의 간화선 수용과 태도	최성렬	조선대 철학과 교수로 동국대 철학박사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논문으로는 <간화선종선병(看話十種禪病)의 체계분석>, <원통성불론(圓頓成佛論)의 십신(十信)에 대하여> 등 다수가 있다.
제11주제 : 고려말 간화선 전통의 확립과정에 대한 검토	최연식	목포대 사학과 교수로 한국사연구회 이사, 한국사상학회 이사, 한국중세사연구회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를 취득했으며 주요 저술 및 역서로는 <새롭게 다시 쓰는 중국선의 역사>가 있다.
제12주제 : 서산휴경과 그 스승들의 저술에서 간화선의 이론적 기반	존 조르겐슨	전 그리피스대 한국학 교수로 한국불교, 한국선종교운동, 동아시아불교와 사상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논저로는 <중국 불교 개건을 위한 근거로서의 한국: 중국선과 한국선 문헌의 증거>, <한국불교의 사회적 분석과 전망>의 다수가 있다.
제13주제 : 조선후기불교의 선 논쟁	박해당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를 취득했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을 역임했다.
제14주제 : 수행과 깨달음의 개별성과 보편성: 한국 근대 불교의 간화선을 중심으로	박재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를 취득했다. 주요저술로는 <깨달음의 신화>, <한국 근대불교의 타자들>이 있다.
제15주제 : 현대 한국 간화선에서의 원류와 구조에 대하여-경봉선사를 중심으로	유진 스님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선학전공 교수로 해인사에서 출가해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다.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를 취득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돈황본 육조단경 연구>, <돈오입도요본론 연구>, <선학개론> 등이 있다.

불교사회학, 9일 '호국불교' 학술세미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8월 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사에서 호국불교(護國佛敎) 전통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조준호 고려대 교수의 '경전상에 나타난 호국불교의 검토' △김용태 동국대 교수의 '한국불교사에 나타난 호국불교의 전개: 시대별 호국불교 이념과 사례 검토'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한국 근현대사에서 호국불교의 재검토: 역사적 사례와 이론' 등 논문이 발표된다.

학술세미나는 박희승 불교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자로는 김호성 동국대 교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등이 참여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호국불교의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의 사실로부터 현재의 교훈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9월 6일 '한국불교사상 의승군의 역할과 의의'라는 주제로 2차 공개 학술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운암 김성숙 선생 재조명 향일 학술세미나

상해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지냈던 태허 스님(운암 김성숙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8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운암 김성숙 선생 향일운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운암 선생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이동연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의 '해방 이전 운암의 독립운동', 김광식 부천대 교수의 '해방 이후 운암의 활동과 정치관', 신규락 연세대 교수의 '운

암이 지니는 현대적 의의' 등이 발표된다.

학술세미나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영담 스님, 박승준 보훈처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함세웅 향일운동단체연합회장이 대거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태허 스님은 일제시대 만해 스님과 함께 3.1운동을 주도했으며 중국으로 건너가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내며 향일운동을 벌였다. 해방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다 1969년 별세했다.

노덕현 기자

선리研, 월례발표회 신청

박사과정 이상 A4 7~8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9월 23일까지 불교학을 비롯해 불교사학, 불교음악, 불교미술 등 응용불교학, 기타 불교와 관련된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제15차 월례발표회 발표작을 공모한다. 발표자격을 박사과정 이상자로 발표분량은 A4 용지 7~8매다. 선정된 발표자는 소정의 발표비가 지급되며 선리연구원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게재 가능하다. (02)734-9653

노덕현 기자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삼봉) 스님이 평생 체험한 대체의학의 신비를 공개하며 전수자를 찾습니다

나 金永生은 13세부터 육경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1세가 된 이 시간 까지도 사람은 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집념으로 정신 수련 중에 46세 8월에 왼쪽 수족이 마비되어 병원진찰 결과 급성뇌졸양이며 수술도 할 수없는 위치라는 진단을 받고 하루하루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선 정신 수련 중에 삼매경에 들었는데 천신으로부터 천의선도를 전수 받으며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을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으며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1일 2시간정도 수련시키며 은용해수를 먹이면 어떠한 질병도 회복된다 하시며 은용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보니 내 건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은가.. 신화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천지신명께 대례 3배를 올리고 논산집에 와서 3일간 잔치를 하고나서 청계천 전기상회를 찾아가 은용해 기구를 만들어 생수 5리터에 은봉을 담구었더니 은이 분해되어 35분 정도 되니 뜨물같이 뿌렸해졌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내 주변에 고통받는 식도암, 간암, 폐암, 위암, 자궁암, 직장암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며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100일씩 복용시켰더니 병원 진찰결과 많은 치유가 있었습니다. 30여년동안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가 20여년이 넘었는데도 많이 치유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전에 청주에서 위 전체에 암이 번져 위를 다 들어내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위암 환자가 찾아 왔기에 은용해수를 100일 복용시킨 뒤 재검사 해봤더니 암 세포가 많

이 줄어들고 체중도 10kg정도 늘어났다 합니다. 둘째 평생두통, 견비통,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전립선이상자, 요실금 환자에게는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1주일에 1번씩 4-5회기를 넣어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천여명이 넘는다.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는 목적이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드리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드리자는데 있습니다. 천하 제일의 민중의술의 대가란 호칭을 받으면서도 천식 침해환자, 자폐증, 퇴행성관절염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최근에 글리코 영양소가 개발되었다. 글리코 영양소는 현재 전 세계 의료분야 및 의학계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 키워드이며 항생물질 유전자를 잇는 제4의 의료혁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식침해환자, 자폐증 아이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몇 개월 복용시켰더니 너무도 신기하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체험을 해봤기에 각 사찰 스님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 광고합니다. 천의선도 비전은 종교 지도자님께만 전수합니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1
매주 월요일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봉빌딩 403호
전 화 : 010-4933-4528

